# 여의도 하스팟

## 이제는 악재보다도 호재에 더 민감할 미국 증시

Analyst 하장권 research.ha@hmsec.com

### 이제는 악재보다도 호재에 더 민감할 미국 증시

WTI 기준 $100을 상회하는 유가가 작금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이미 프리미엄으로 반영한 수준이라면, 이제는 악재보다도 호재에 더 민감할 미국 증시. G7, 일본의 비축유 방출 가능성 소식에 WTI 유가가 급락을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판단

명분 약한 전쟁에 개입한 이후 지지율을 잃었던 과거의 정치적 사례를 트럼프는 모를 리 없음. 다만, 이대로 가면 하원에서의 패배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이른바, 'High Risk, High Return'의 이란 공습이라는 패를 던진 셈. 당장 이번 공습에 대한 미국 여론은 찬성 27%, 반대 43%로 반대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지만, 이란 내 친미 정권 수립,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의 성과를 보였을 때 찬성 측으로 돌아서겠다 응답한 비율은 45% 전후 수준. 이란의 무조건 항복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언급하곤 있으나, 중간선거에 예상되는 득이 실보다 커진다면 협상의 허들을 현실적 레벨로 낮출 가능성 농후

### 이란 사태가 증시에 단기적 이슈로 그친다면, 이는 기존 AI 성장주로의 주도주 재전환의 트리거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미국 증시. 현재 미국의 주요 지수는 한국 코스피 대비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 사실 이 배경엔 지난 상승의 색채 차이에 있음. 여지껏 코스피는 AI 혁신 기술 그 자체의 색채가 짙었던 것이, AI 혁신에 따른 메모리 병목 수혜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 내지는 SK하이닉스에 집중된 바 있음. 반면, 미국 증시는 AI 기술 그 자체의 색채가 많이 옅어진 지 오래. 중소형주를 필두로 미 경기 Bottom-out 기대감을 지난 8월부터 선반영하며 BM 대비 Outperform 지속됐으며, 대형주 내에서도 지난 11월부터 동일가중지수의 Outperform이 지속되는 등 확산의 모멘텀이 증시 상승의 주류로 자리잡음. 그러한 까닭에 시가총액 비중이 큰 M7 내지는 대형주 내 AI 유니버스 멀티플은 엔트로픽 사태 발발 이전부터 이미 5년 평균 하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추가 하락이 더 진행된 지금은 -1 표준편차 수준까지 근접. 이는 작년 4월 S&P 500이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던 '해방의 날' 이후 가장 저렴한 수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주류의 종목이 이미 저렴한 수준이기에 미국 증시 하락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

결국, 지금의 지정학 리스크가 증시에 단기적 이슈로 그친다면, 이번 이란 사태가 기존 AI 관련 성장주로의 주도주 재전환의 트리거가 될 공산이 높음. 이번 랠리를 AI 혁신과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중첩된 랠리로 평가하고 있는 배경에서, 지난주 쇼크 수준으로 발표된 비농업고용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소. 결국 침체까지 진입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이번 고용 쇼크는 작년의 고용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연장될 기대감을 자극시킬 것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하장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